

## 육계업계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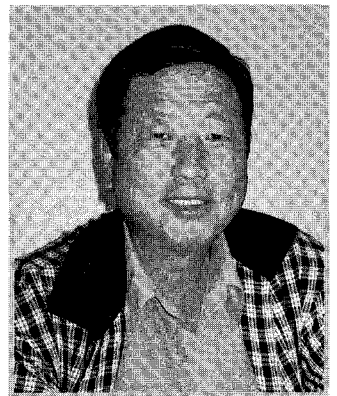
# 지속적인 닭고기 소비 홍보로 활로의 길 찾아야...

김 동 재 송정농장/이천육계지부장

**느**은봄 농촌은 모내기에 한창 바쁘고 아카시아 향기와 다소곳  
**웃**이 피어있는 야생화가 산과 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육계업계에 종사하는 우리네 마음은 평온치만은 못하다. 주위에 우리 동료 몇 명은 뇌졸중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육계불황과 HPAI로 인한 피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재기를 하려해도 고가의 병아리, 사료가격이 마음을 압박하고 계약사육비 또한 100원으로 생활비 자체도 힘에 겨운 상태다. 사료값 인상율은 작년대비 약 18%정도 인상되었지만 또다시 9%정도 인상을 한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내수소비는 위축되어 복을 대비하여 닭 가격 또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을 대비한 병아리는 선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들고 사료값 또한 외상구매가 힘든 형편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업계에서는 닭고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에 더욱 전념을 해야 할 것이다. 1년에 10마리 남짓 소비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1~2마리씩 더 먹을 수 있도록 말이다. HPAI 파동때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 어깨띠를 두르고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온갖 곳을 헤집고 다녔다. 당시에 가두홍보를 하며 앞장 서 애쓴 사람들은 닭 한마리도 없던 사람들이다. 그때는 분명 하나였고 한 덩어리였다. 같이 살자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닭 값이 회복되면서 상황은 변해버렸다. AI를 핑계로 내린 사육비는 복귀되지 않고 600원을 웃도는 병아리 가격은 약추 선별도 없이 분양되어 생산비를 가중시키고 있다.

계약사육비는 최소 도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고가의 병아리 가격을 받으면 약추 선별이라도 확실히 하여 생산비를 줄여주는 상도이는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일심동체가 되려면 동반자를 배려할줄 아는 미덕을 갖추어야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육계인이 다시 어깨띠를 두를 때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거리로 나설 것이다. **양계**